

## TV뉴스 문장의 문법범주에 대한 수어통역방송에서의 실현 방식 분석

송미연\*

강남대학교 대학원 수어통번역학과

강창욱\*\*

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

### 《요약》

---

TV뉴스 방송통역에서 한국어를 수어로 동시통역하는 수화통역사가 한국어 뉴스 원천 텍스트의 문법 범주를 수어로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8개의 방송에서 송출된 TV뉴스를 수집하여 평서형 서술문과 의문문, 시제와 상, 사동법과 피동법, 부정법 등의 문법 범주 영역에서 비교·분석하였다. 평서형 서술문은 수어의 크기나 빠르기, 고개 끄덕임, 짧은 휴지로 실현되며, 원천 텍스트와 서술어와 관계없이 {말하다}, {이다} 등의 어휘로 종결되었다. 의문문은 시선 응시와 의문의 비수지신호, {물다}를 통해 실현되었다. 특히 판정 의문문은 yes-의문, Wh-의문문과 평서형으로, 설명 의문문과 평서형 서술문이 Wh-의문문으로 실현되었다. 텍스트의 표면 구조에 관여하지 않고 시간 어휘와 함께 현재형으로 문장이 종결되었으며, 이때 과거형의 경우 {끝}, 미래시제의 추측형은 {아마}로 실현되었고, 상은 비수지신호인 '과'완료상, 느리고 길게 늘어진 동작, 볼의 부풀림 등을 통해 실현되었다. 사동형은 {만들다}나 {하다} 표현과 의미 대응 수어 또는 일치동사 사용과 문장 전체의 구조를 수어의 언어적 특징인 공간 활용과 지시 기법으로 실현하였으며, 피동법은 일치동사를 통한 수향과 수동의 움직임으로 실현하고 문법상 피동이 아닌 피동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 {되다}, {생기다} 등의 수어 어휘로 실현하거나 다른 어휘로 대체 또는 생략하였다. 부정문은 능력 부정형이 능력부정, 완결을 부정하는 {아직} 부정 또는 {어렵다} {갈등} 등의 어휘로 실현되었고, 사실 부정형은 상황 부정 또는 사실 부정으로 실현되었다. 또한 원천 텍스트에서 부정형이 드러나지 않으나 부정어휘 {아니다}로 부정형이 실현되는데 이 경우 두 문장을 대조시키는 통역 전략으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수화통역사의 실현 방식이 실제 농사회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후속 연구가 다양하게 시도되어야 하겠다.

---

주제어 : 수화통역, TV 뉴스, 통역 방송, 문법 범주, 수어통역방송

---

\* 제 1저자

\*\* 교신저자 (cwkgang@kangnam.ac.kr)

## I. 서론

### 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최근 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따른 미디어의 확장과 서비스의 다양화는 방송서비스를 더욱 여러 기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 방송서비스를 이용하는 능력과 환경에 제한을 주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특수계층에 제공되던 특수서비스로 인식되던 종전의 장애인방송<sup>1)</sup>은 기본서비스로 개념과 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송종길 외, 2009). 2016년 초에 개최되었던 세계경제포럼(WEF, 일명 다보스포럼)에서 화두가 된 '4차 산업혁명'은 이후 국내 정세에 유행어처럼 번지면서 실체 없는 개념으로 회자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를 통한 미디어 세상이 가져올 변화로 인해 더욱 편리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선진국에서는 방송미디어 영역에서 완전한 입체를 구현하는 홀로그래피 기술 개발 및 도입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첨단화로 장소와 시간을 초월한 소통의 창구가 확대됨은 물론 정보 생산과 공유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변화되고 있지만 장애인에게는 미디어를 통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부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인에게 가장 일상적인 미디어는 텔레비전 방송이다. 이는 생활에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여가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 수단(백중환, 2011)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TV(38.6%)와 스마트폰(55.5%)이 필수 매체라는 인식(정용찬·김윤환·박선영, 2006)이 부각되고 있으며 사람들이 뉴스 정보를 얻는 주요 미디어로 자리매김 하였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장애 혹은 정보 접근의 장애로 특징(이준우, 2009)지어지는 청각장애인은 시각을 활용한 정보 획득 의존도가 높아 미디어로의 접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부터 장애인방송의 의무편성이 시작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별 장애인방송 편성 비율 목표치를 2016년 기준 폐쇄자막방송 100%, 수화통역방송<sup>2)</sup> 5%로 제시함으로써 여전히 수화통역방송보다 폐쇄자막방송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

1)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4호 제2조에 정의된 "장애인방송"이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통역방송을 의미한다.

2) 2016년 2월 3일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에서는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수어통역'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나 제도 등에서 용어가 일괄적으로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수화통역사'명칭 및 선행연구나 방송통신위원회고시에 명시된 경우에는 '수화통역사'와 '수화통역'으로 사용하였다.

(Deaf person)의 경우 수어가 한국어의 언어체계와 다르기 때문에 폐쇄자막방송이 100%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한글자막을 통해 방송정보를 충분히 수용하는 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수어통역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수어통역의 질적 향상을 위한 통역 현상이나 기술, 전략과 평가 등에 관한 연구 분석이 미비한 실정이다. 다행히 최근 최상배(2010, 2011)와 민은주(2012, 2013)의 연구는 수어통역 과정과 통역 전략에 시사점을 주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들 연구에서는 출발 음성언어가 수어로 통역되는 과정에서 두 텍스트를 대조하여 통역률 및 단어, 구, 절 수준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민은주(2013)의 연구는 문장 변환의 유형 분석과 통역사 인터뷰를 통해 통역애로의 요인과 좋은 통역의 요건을 살펴봄으로써 통역학적 접근을 구체적으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출발 음성언어 텍스트가 수어로 통역될 때 관찰되는 텍스트를 범주화하여 4가지 변형 유형으로 제시하였지만 변환되는 과정에서 원천 텍스트의 문장구성과 기능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함으로 인해 제한점을 갖는다.

통역은 각각의 고유한 언어구조를 지닌 서로 다른 두 언어의 의미를 일치시키는 과정이므로 이러한 통역과정은 통역사의 직무 수행에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다. 이것은 원어로 표현된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한 후 목표 언어로 의미를 부호화하는데 있어 메시지의 원 뜻의 보존은 물론 정확한 부호화와 메시지에 실린 감정 혹은 느낌마저도 수신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복잡한 사고 과정과 실행과정을 요구한다(Stewart, Schein & Cartwright, 1998; 원성옥 외, 2013). 따라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음성언어 통번역학에서도 통역과정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켈레(1995)가 제시한 어휘상의 결함, 의미론적 등가물의 존재 여부, 서로 다른 언어체계, 번역이 불가능한 관용어, 상징과 메타포, 주석이 꼭 필요한 부분들 등(라데군디스 슈텔레, 2001)을 통역과정에서 겪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언어의 상이한 구조가 서로 번역을 통해 극복될 수 없으며 완전히 일치하는 등가물 또한 없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번역 불가능을 주장하는 언어의 상대주의 이론과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언어는 하나의 기호체계일 뿐이므로 다양한 표현 형식보다 언어를 초월한 논리적이고 보편적인 특징을 통해 제3의 관점에서 모든 텍스트는 번역될 수 있다는 보편주의 번역이론이 공존하면서 통·번역사의 가치와 철학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음성언어 통역사도 원천 텍스트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좋은 통역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수화통역사도 자신의 통역행위를 통해 농인이 원천 텍스트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크며, 효율적인 통역전략과 바람직한 의미 전달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을 필요로 한다. 사고와 의미를 전환하여 전달하는 일련의 언어 행위로서의 통역(강창욱, 2000)은 단순한 코드전환이

아니라 문화권 사이의 의사소통 활동이다. 이는 문화권 사이에서 화자의 의도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번역 또는 통역에는 많은 난제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수어통역에 대한 질적 연구가 미진한 가운데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통역 활동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통역이 이루어지면서 목표 텍스트로 변환된 통역 결과물의 문장 구성 및 기능이 어떠한지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수화통역사들이 방송통역에서 원천 텍스트를 목표 텍스트로 변환할 때 원천 텍스트의 문법 범주를 수어로 어떻게 실현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한국어를 한국수어로 동시통역하는 원천 자료의 획득이 비교적 용이한 각 방송국의 TV뉴스를 수화통역사가 목표 텍스트인 수어로 문법범주를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TV뉴스 한국수어 통역은 TV뉴스 문장의 평서형 서술문, 의문문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가?
- 둘째, TV뉴스 한국수어 통역은 TV뉴스 문장의 시제와 상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가?
- 셋째, TV뉴스 한국수어 통역은 TV뉴스 문장의 사동법과 피동법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가?
- 넷째, TV뉴스 한국수어 통역은 TV뉴스 문장의 부정법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가?

## 3. 연구의 제한점

방송통역은 아나운서가 미리 작성한 기사를 읽기 때문에 단위 발화수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아나운서의 발화 내용을 모방에 가깝게 전달하는 축어적 통역을 하게 될 때 수용자의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 수화통역사의 수어통역 과정에서 한국어 음성언어 체계의 간섭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현장으로 연결된 기자의 취재 내용을 청취하면서 통역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송국 내의 앵커와 스태프들의 잡음이나 수화통역사가 통역해야 하는 내용과 다른 그 다음 기사내용이 프롬프트를 통해 시각적으로 제공됨으로써 불필요한 정보가 과다하게 입력되어 통역사가 리포터의 발화에 집중할 수 없는 방송 환경 등 여러 가지 변인으로 인하여 다른 통역장면에 비해 수화통역사가 한국수어로 통역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통역환경에서 제공되는 원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과 전문통역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어통역 분석 자료로 채택하였다.

이 연구는 TV뉴스를 수어로 통역할 때 문법범주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밝히는 데 연구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TV뉴스를 원천 텍스트로 사용함으로써 수화통역사가 TV뉴스 내용 전체를 한국수어로 문법범주를 실현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등 다음과 같은 제한점들이 있다.

첫째, TV뉴스는 시간적 제약과 한정된 공간, 프롬프트를 통한 한글 본문 읽기, 그리고 엠바고나 속보성 등의 이유로 내용의 사전 숙지의 어려움과 즉각적인 반응의 부재 등 어느 통역환경에서보다 수화통역사가 감당해야 하는 장애 요인이 많기 때문에 분석 자료에서 실현된 통역내용이 다른 일반적인 통역 상황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한국수어의 문법범주 실현 현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뉴스는 사실적인 정보의 전달이나 설득을 위해 설명식으로 전달하는 것이므로 뉴스 기사에서 모든 유형의 문법 범주가 나타나지 않는다.

셋째, 중앙 TV뉴스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따라서 모든 수화통역사의 통역 실현 방법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 1) 분석 자료

이 연구는 방송법 제69조에 의거, 필수지정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송출하는 방송 중 3개의 중앙지상파방송(KBS, MBC, SBS)과 5개의 보도·종합편성채널(MBN, TV조선, YTN, 연합뉴스, 채널A)에서 송출된 TV뉴스 중 동일한 주제와 유사한 맥락을 가진 내용을 대상으로 각 방송의 수화통역사가 한국어로 된 원천 텍스트의 문법 범주를 수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중앙지상파방송 중 EBS는 교육방송이라는 특성 상 타 방송사와 비교 가능한 동일한 주제나 동일한 맥락을 가진 뉴스를 찾기가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제하였으며, 8개의 방송은 농민이 본인의 의지에 의해 전국 어디에 있든 TV 뉴스를 시청하고자 할 때 동일한 내용의 수어통역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자료는 2016년 5월에서 12월까지 각 방송 및 채널에서 방송된 수어통역 뉴스 중 콜러(1992)가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일상 텍스트(라데군디스 슈돌체, 2001)를 고려하여 동일한 주제와 유사한 맥락을 가진 뉴스를 선정하였다. 또 수어통역이 제공되는 시간대의 뉴스에서 시의성과 흥미성을 가질 만한 내용 중 각 방송사

별로 동일한 주제의 흐름이 비슷한 내용으로 자료를 추출하였다. 수어통역 분석 자료는 <표 1>과 같다.

<표 1> 수어통역 분석 자료

분야	주제	분석문장수	방송사	수화통역사
국제.정치	브렉시트 투표 및 결과	294문장	공중파 3곳 종합채널 3곳	공중파 7명 종합채널 3명
경제.노동 제도	2017년도 최저임금 고시	121문장	공중파 3곳 종합채널 1곳	공중파 6명 종합채널 1명
사회.정치	백남기씨 부검영장 발부	80문장	공중파 3곳 종합채널 1곳	공중파 5명 종합채널 1명
사건.사고	유치원 차량에 4세 어린이 방 치, 의식불명	89문장	공중파 2곳	공중파 5명
총 계		584문장	공중파 3곳 종합채널 5곳	공중파 8명 종합채널 6명

## 2) 자료수집 절차

이 연구자료 수집을 위해 선정된 분석 자료가 게시된 웹사이트를 접속한 후 녹화 프로그램 중 하나인 반디캠 3.2.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녹화하였고, 이 중 동일한 주제인 것과 내용의 흐름이 유사한 것으로 분류한 후 동일한 내용으로 인식되는 뉴스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뉴스의 녹화영상으로 수어를 분석하기에 앞서 뉴스 앵커의 기사문과 수화통역사의 수어통역된 수어문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뉴스 앵커의 기사문은 앵커의 목소리를 본 연구자가 들으면서 직접 전사한 것과, 방송사에서 제공되는 스크립터를 활용하여 정리한 후 녹화된 방송을 들으면서 발화와 스크립터를 재확인 및 수정하였다. 수화통역사의 통역물은 본 연구자가 통역의 속도 조절과 반복 확인 등이 가능한 ELAN 4.9.4 프로그램을 통해 전사 한 후, 전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을 받은 농인 가정 출신이며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농교육과 수어교육에 종사하는 농인 2명에게 감수를 요청하였다. 또 일치도 확인을 위하여 수화통역사 자격증 및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이며 수어교육과 수어통역 현직에 종사한 지 15년 이상인 유경험 수화통역사 2명에게 검증받았다.

## 2. 자료 분석방법 및 기준

### 1) 분석 기준 및 방법

584개의 문장을 한국어 문법 범주에 따라 각각 정리하고 전사된 통역문은 수어 문법에 따라 정리한 후 각각 비교하였다. 문법 범주의 분석을 위한 하위 유형은 의향법 중 평서형 서술문과 의문문, 시제와 상, 부정법, 사동과 피동이다. 서술어의 끝에 결합하여 문장을 완결짓는 형식에서는 뉴스 기사문이 사실적인 정보의 전달 매체로서 평서형과 의문문만 나타났다. 의향법의 평서형 분석의 예는 다음과 같다.

*원천 텍스트 : 개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역사 4 : {열다} {빨리} {과정} {중}느리게 휴지 (11)

분석내용 : 평서형 서술문은 강조 여부에 따라 수화의 크기, 빠르기, 강도 등에 의해 실현되는데, 통역사 4는 {중}느리게 과 같이 수어의 수동을 느리게 표현하며, 그 동작을 유지한 채 잠시 휴지를 취했다.

### 2) 기호의 설명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기호는 이정옥(2012)과 이준우·남기현(2014)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재정리 후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다.

첫째, 외국에서는 알파벳 대문자로 글로스를 나타내며 수어 전사 표기를 하지만 한글에서는 대·소문자 구분이 없고 전사 표기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통역을 전사할 때 분류명을 표기하기 위하여 {법}과 같이 { }를 사용하였으며, 분류명은 한국수어사전에서 검색할 수 있는 표제어이거나 한국수어사전의 원어정보에 표기된 것을 사용하며 수어 형태 구분용으로 글로스는 아니다.

둘째, 수화통역사는 순차적 합성어<sup>3)</sup>(이준우·남기현, 2014:47) {영국}과 같은 어휘를 {영어}+{나라} 또는 일부인 {영어}로만 표현하기도 하였으므로 합성어를 쪼개어 각각 분류명을 표기하였다.

셋째, 지숫자와 지화의 표기는 # 즉 {#2017}, {#EU} 등으로 나타내었다.

넷째, { } 안의 분류명은 양손 동이형과 상관없이 분류명을 표기하였으며 한손 수어는 우세손을 기준으로 하였다. 대체로 우세손은 오른손을 사용하였지만 경우에 따라 비우세손이 단독으로 표현되는 경우에는 { } 옆에 윗첨자로 '비우세손'이라고 표기하였다. 또 양손 수어이지만 한손만 사용된 경우에도 { } 옆에 윗첨자로 우세손

3) Brennan(1990)은 수어에서 대부분의 합성어는 음성언어의 합성어와 유사하게 단어들을 순차적으로 결합하여 형성되는데 이를 순차적 합성어라고 하였다(이준우·남기현, 2014: 147).

/비우세손 표기를 하였다. 예를 들면, {#6} 비우세손, {죽다}, {신청}, {아니다} 우세손 등과 같다. {#6} 비우세손나 {아니다} 우세손은 비우세손으로 나타난 한손 사용 수어나 한손만으로 나타난 양손 사용 수어를 의미한다. 또한 선행한 수어의 형태를 유지한 채 다음 수어가 조동되는 경우이거나 동시적 결합구조를 가지는 수어만의 독특한 언어적 특성 때문에 하나의 어휘가 아닌 각각 상이한 어휘가 우세손과 비우세손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를 중심으로 왼쪽은 선행했던 비우세손이 유지되는 수어 분류명 혹은 새롭게 조동되는 비우세손의 수어 분류명이, 오른쪽은 우세손으로 새롭게 조동되는 수어의 분류명으로 표기하였다. 예를 들면, 한 명의 통역사는 “여론조사”를 {사람} + {사람(남자)/생각} + {사람(남자)/조사}로 표현하였다. {사람}은 양손 동형 수어인 {사람}을 나타내며, {사람(남자)/생각}은 수화통역사가 비우세손으로 사람을 나타내는 {남자}와 동시에 우세손으로 {생각}을 표현하였음을 의미한다. 또, {사람(남자)/조사}는 수화통역사가 {생각}과 함께 실현한 비우세손을 유지한 채 우세손으로만 {조사}를 표현하였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고개 끄덕임이나 몸을 우측으로 기울임, 공간 표지 등과 같은 비수지신호(non-manual signal:NMS) 및 수어가 반복되어 조동되는 횟수는 위첨자로 표기하였다. 단, 수어 없이 비수지신호만 단독으로 표현되었을 때에는 단어 뒤에 \_\_ (밑줄)을 긋고 그 위에 위첨자로 설명을 표기한다.

예시① {경찰} 상체 우측방향 {지시 그} 우측 {가족} 좌측 {만나다} P1↔P2.4번 {경청} 고개를 숙이고  
우측으로 돌림

예시② 몸을젼하며 앞으로 기울이며 다음 수어시작함

여섯째, 손을 내리거나 모으면서 쉬는 형태는 ‘휴지’로 표기하였다. 다만 수어와 수어 사이의 짧은 휴지는 선행된 수어 기호 옆에 위첨자로 ‘짧은 휴지’라고 표기한다. 예를 들면 {#10/#25} {끝} 휴지 {해결} 2번 {필요} 휴지(손내림) 등으로 표기한다.

### III. 연구 결과

#### 1. 의향법의 실현방법

서술어의 끝에 결합하여 문장을 끝맺는 기능을 하면서 화자가 청자에게 언어내용을 전달할 때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것의 실현 여부를 의향법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뉴스 기사문은 사실적인 정보의 전달이나 설득을 위한 설명식 전달로써 대부분 평서형 서술문으로 나타난다. 단, 앵커와 리포터가 질의응답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 의문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 1) 평서형 서술문의 실현방법

엄미숙(1996)에 의하면 수어의 평서형 서술문은 강조 여부에 따라 수어의 크기, 빠르기, 강도 등으로 표현된다. 본 분석 텍스트에서는 첫째, 서술어인 수어의 크기, 빠르기 강도에 의한 실현(250)과 서술어인 수어의 마지막 동작과 함께 표현되는 짧은 휴지로 실현, 둘째, 고개를 끄덕이거나 숙이는 형태로 실현(145), 셋째, 손을 내리거나 손을 모은 상태의 휴지, 넷째, 수어 {말하다} 혹은 {말하다} + {끝} 과 {이다}, {입니다} 등 종결형 서술어로 실현되는 경우 뒤에 손을 내리거나 모으는 휴지가 함께 동반(50)되며 실현되었다.

원천 텍스트 : 다른 지역에서도 투표소마다 길게 줄을 선 모습이 보이곤 했습니다.

통역사 14 : {(도장)찍다} {하다} {위하여} {줄서다} <sup>좌측. 느리게.</sup> 짧은 휴지 (250)

원천 텍스트 : 영국 국민들은 유럽 연합을 떠나는 걸 택했습니다.

통역사 7 : {사람} {영어} {나라} {사람} {유럽} {소외} {결정} <sup>고개숙임</sup> (145)

원천 텍스트 : 세계 각국은 불확실성 가증을 내세우며 유감을 표명했고, 주변국에서는 추가 EU 탈퇴 투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통역사 2 : {세상} {~마다} {나라} {희미하다} {성격} {더욱} {크다} {때문} {우려} {말하다} {끝} {분위기} {나라} {더욱} {#EU} {연합} {탈퇴(자리에서 내려앉다)} {넣다(투표)} {말하다} {있다} {이다(서술격조사)} 휴지(손내림) (50)

## 2) 의문문의 실현방법

국어에서 의문문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 굳이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서술이나 명령의 효과를 나타내는 반어 의문문 또는 수사 의문문으로 구분된다(정경일 외, 2013). 수어의 의문문 실현방법은 반드시 상대의 시선을 응시하여야 하며 의문의 표지는 의문 기호를 생략하는 대신 yes-의문문은 {문다} 즉 {생각}+{주다}라는 수어를 활용하고, Wh-의문문은 의문 부사를 통하여 실현한다. 그 외에도 의문을 나타내는 비수지신호 즉 눈썹을 올리거나 입을 벌리거나 얼굴을 앞으로 내미는 표현 등에 의해 실현된다. 본 분석 텍스트에서는 의문문 유형에 따라 수화통역사가 각각 다르게 실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직접인용문에서의 판정 의문문을 수화통역사는 yes-의문문의 형태인 {문다} 즉 {생각}+{주다}로 실현(136), 둘째, 판정 의문문이 평서형(266) 또는 Wh-의문문으로 실현, 셋째, 설명 의문문이 Wh-의문문으로 실현, 넷째, 평서형 서술문이 의문부사를 활용한 의문형으로 실현되었다.

통역사7(154)와 같이 평서형 서술문의 원천 텍스트가 통역에서 의문 부사와 함께 실현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었다. 이는 상대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보 전달 구조 중 바탕-초점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수화통역사가 접속문과 내포문이 포함된 복문의 원천 텍스트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초점화 형식을 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정옥(2012)의 연구에 의하면, 초점화는 분열문에서 의문사가 나타나고 이어서 잠깐의 휴지로 나타난다. 또 문미로 이동한 명사에 고개 끄덕임이 나타나는데, 통역사 7은 후행절의 한자어 부사구 '대책 마련에'를 표현하기 위하여 {미래}+{무엇}와 함께 의문의 비수지신호와 짧은 휴지 후 문미에서 고개 끄덕임을 실현하였다. 이러한 형식은 통역의 내용을 강조하거나 요약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수사학적 의문 형태로 볼 수 있다.

원천 텍스트 :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남아야 하는가? 아니면 EU를 떠나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

통역사 6 : {영어} {나라} {유럽(손등이 바깥을 향하는 수향)} {대로} {남다} {머무르다} {되다} **{문다}** {아니다} {~면} {유럽(손등이 바깥을 향하는 수향)} {탈퇴(적을 떼내는 동작)} **{문다}** {대로}<sup>2번</sup> ... (136)

원천 텍스트 : 이제 투표는 끝났고, 개표 작업을 수작업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를 좀 넘어야 한다고요?

통역사 14 : {(도장)찍다} {끝} {문열다} {일} {직접} {펼쳐보는 동작}  
 {하다} {계획} {있다} {마지막} {한국} {시간} {오후} <sup>느리게</sup>  
 {후} {발표} {있다} 휴지(손내림) (266)

원천 텍스트 :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투표 결과를 보고 받았고 전 세계 주  
 요국 정상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통역사 7 : {미국} {대통령} {아프리카} {넣다(투표)} {마지막} {듣다}  
 {또} {다르다} {나라} {대통령} {곳} <sup>4번. P중앙→우측→몸 앞쪽 반원</sup>  
 {지시 동그라미} <sup>(곳을 실현한 범주 내를 가리킴)우측. 입모양 '아'. 짧은 휴지</sup> {미  
 래} {무엇} <sup>오 입모양. 눈동그랗게. 짧은 휴지</sup> {생각} {고민} {중} <sup>고개 끄덕</sup>  
 임 (154)

## 2. 시제와 상의 실현방법

언어내용을 전달함에 있어 시간 표현과 관련된 문법 기능이 시제이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 상이다(정경일 외, 2013). 분석대상 원천 자료의 문장은 방송 기사문이기 때문에 대체로 속보성, 현재성, 참신성을 중시하는 현재 중심 시제 활용이 많으므로 가능한 한 현재 시제나 그에 준하는 현재 진행형 또는 현재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속보성보다 정보 전달에 치중하는 경우 다르게 표현되기도 한다.

### 1) 시제의 실현방법

수어에서 시제의 표현은 시간 부사 {지금}, {오늘}, {내일}, {어제} 등이 서술어 앞에 놓이면서 실현되며 서술어 앞의 위치는 비교적 자유롭다. 다만 {내일}과 같은 미래 시제는 문두에 가깝게 위치한다. 분석 자료에서는 첫째, 현재 시제는 시간 부사 {오늘}, {지금}을 사용하거나 서술어로 실현(484), 둘째, 과거 시제는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471) 또는 수어 {끝}을 통해 실현, 셋째, 미래 시제는 미래 시간 부사 {내일}, {미래}, 미래의 특정일 또는 추정을 나타내는 수어 {아마}로 실현(544)되었다.

원천 텍스트 : 경찰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기로 했지만, 유족이 부  
 검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협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통역사 9 : {오늘} {부터} {회의} <sup>3번</sup> {시작} {그러나} {가족} <sup>좌측</sup> {생각}  
 {반대} {크다} {때문} {협의} {못하다} {아마} (484)

원천 텍스트 : 어제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부검  
영장 집행이 25일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통역사 7 : {어제} {회의} {조사} {시간} {서울} {지방} {경찰} {책임(양  
손)} {장(남자)} {영장} {가져가다}<sup>P1→P2</sup> 짧은 이동 {수술}  
{#10(0형)} {#10(0형)/달} {#10(0형)/#25} {#10(0  
형)/전} {영장}<sup>붙여진 시작점 없이 펼쳐진 상태</sup> {가져오다}<sup>P2→P1</sup> {~  
파(할 수 있다)} {말하다} (471)

원천 텍스트 : 당시 외부 온도는 34도 이상, 시동이 꺼진 채 밀폐된 버스 안  
내부온도는 40도를 훌쩍 넘었을 것을 추정됩니다.

통역사 5 : {밖} {뜨겁다} {온도오르다} {온도/#34} {온도/열쇠(시동)}  
{온도/멈추다} {꼬마} {꽉막히다(숨막히다)}<sup>불 부풀리다</sup> {버스}  
{곳} {붕고} {안} {#40}<sup>비우세</sup> {#도} {지나치다} {아마}  
(544)

## 2) 상의 실현방법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모습을 나타내는 동작상은 발화 시  
점을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낸다. 동작상에는 진행상, 완료상, 예정  
상이 있으며 진행상은 현재 시제, 완료상은 과거 시제, 예정상은 미래 시제와 일치한  
다(정경일 외 12인, 2013: 145). 첫째, 완료상은 마침을 표현하는 수어 {끝}과 함  
께 입술을 다물었다가 과열음을 내듯이 입술을 벌리는 비수지신호 ‘파’ 입모양으로  
실현(329), 둘째, 진행상 또는 지속상은 느리고 길게 늘어지는 움직임의 수동(329),  
수동의 반복(536), 그리고 불의 부풀림(422)과 동시에 느린 움직임의 수동으로 실  
현되었다. 진행상은 한국어에서 ‘-어 있다’ 혹은 ‘-고 있다’와 같이 보조동사로 제  
시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통역사가 가장 쉽게 사용하는 것은 수어 {중}을 통한 실현  
이다.

원천 텍스트 :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주말 새벽 결정됐습니다.

통역사 1 : {내년}<sup>짧은 휴지</sup> {일} {1시간} <sup>고개숙이고 시선 비우세</sup> {재산} {얼마}<sup>3번</sup>  
{지난주} <sup>고개숙임</sup> {회의} <sup>고개숙임 휴지, 길게함</sup> {지체하다(시간끝다)}<sup>느린</sup>  
동작 {끝} ‘파’입모양. 고개들기 (329)

원천 텍스트 : 최 군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중한 상태  
입니다.

통역사 1 : {자연} {어지럽다} {쓰러지다} <sup>고개들다</sup> {지금} {병원} {입원}  
 {치료} <sup>4회 휴지</sup> {지시 그} {위독} <sup>2회</sup> {위험} (536)

원천 텍스트 :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법을 어기는 즉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역사 7 : {또} {#ㄱ 체 죄} {수입} {순중} {목적} {법} {위반} 입 동그렇게  
별됨(있다 수화 전에 나온 임모양) {있다} {#2천만} {이하} {벌}  
 {돈} <sup>P1→P2</sup> {명령} {오늘} {법} {바꾸다} {추진} <sup>불 부풀림</sup> {있다}  
 (422)

### 3. 사동법과 피동법의 실현방법

#### 1) 사동법의 실현방법

한국어에서 사동은 ‘읽히다’의 ‘-히-’와 같은 사동접미사를 통한 접미사 사동과 ‘읽게 하다’와 같이 ‘-게 하다’ 또는 ‘-게 만들다’를 통한 통사적 사동이 있다. 엄미숙(1996)은 {명령하다}나 {시키다}와 같은 직접 사동의 어휘를 통하여 실현하는 방법과 {시키다}를 생략한 서술어가 수향에 의해 명확한 의미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서는 첫째, 출발 텍스트의 언어적 차원에 집중하여 가능한 출발 텍스트에 가깝게 모방함으로써 덜 소모적이고 효율성과 경제성을 지니는 축어적 통역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한국어의 통사적 사동형과 동일하게 {죽다}+{만들다} 또는 {죽다}+{하다}로 실현(460)하였다. 통역 과정에서 목표 언어권의 어휘 선택은 매우 중요하며 통사적 사동은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맥적인 의미 분석과 이를 토대로 전이된 내용을 전달하는 수어의 선택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의적 해석은 ‘사람들(경찰)이 아버지를 직접 죽였다’와 같이 사동주 자신이 행위에 직접 참여하여 일어난 일로 해석되는 것과, ‘위 사건처럼 경찰이 집회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어떤 특정 원인에 의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와 같이 피사동주의 행위 즉 ‘아버지의 죽음’을 야기했을 뿐 직접 그 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동법이 나타나는 한국어의 동사를 수어의 일반동사(483)로 실현하되, 일반동사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수어의 문법적 특징인 지시를 통해 실현되었다. 일반동사 {죽다}는 {친구}+{죽다}와 같이 ‘주어+서술어’ 구조로 사용되기 때문에

통역사9(483)은 {나} + {아버지} + {죽다} 라는 기본구조를 선행한 후, {경찰} + {남성} + {지시/남성} + {알다/남성} + {죽다/남성} 로 표현하여 ‘아버지의 죽음을 경찰이 알고 있다’는 내용을 부가적으로 설명한다. 이는 아버지의 사망의 원인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찰에 의한 것이라는 텍스트의 사동의 의미가 완전하게 전달된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사동법이 나타나는 한국어의 동사를 수어의 일반동사로 활용하되 문장의 전체 구조를 한국수어의 문법적 특징인 공간 활용과 지시 기법(426)으로 실현되었다. 즉, {나} + {아버지} + {죽다} 의 기본구조가 선행한 후, 공간과 동시적 결합구조를 활용한 {죽다/지시} + {죽다/누구} <sup>2번, 누워모양</sup> + {죽다/지시 그(우측 앞쪽)} 를 표현함으로써 사동의 의미가 내포된다. 이전의 원천 텍스트에서 통역사 1은 우측을 경찰, 좌측은 가족으로 공간을 이미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공간 사용을 통해 ‘우측 경찰에 의해서 아버지가 죽은 것’으로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사동문을 표현할 때는 통역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역사가 이해하면서 통역 중 설정된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간이라는 특성을 이용하면 주동문 구사는 물론 사동이나 피동을 나타낼 수 있다(원성옥 외, 2013).

넷째, 사동법이 나타나는 한국어의 동사를 수어의 일치동사로 수향과 수동의 움직임으로 실현되었다. 동일한 원천 텍스트에 대해 통역사 1(426)은 어떤 대상에 미치는 것을 뜻하는 ‘닿다’의 사동표현에 대한 통역을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양손 동형으로 표현하는 일치동사 {말기다양손} <sup>P1→P2</sup> 우측으로 실현하였다. 통역사 12(493)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의 통역을 아버지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행한 것을 의미하는 일치동사 {죽이다}로 실현하였다. 통역사가 선택한 어휘는 농인이 원천 텍스트의 의미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통역과정에서 어휘 선택은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통역사는 통역 내용의 전후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원천 텍스트의 분석과 전이과정에 대한 철저한 훈련 및 배경지식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은 과거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서로 연결시켜 응집력을 키우는 ‘재참조’라는 Livinston, S. 외(1994)의 통역전략으로 유용하게 발휘될 수 있다.

원천 텍스트 :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사람들의 손을 아버지에게 닿게 하고 싶지 않고요.

통역사 6 : {아버지} {죽다} {만들다} <sup>2번</sup> {사람} {여러 가지} {손} <sup>2번</sup> {또} {아버지} 휴지(손내림) {또} {말기다(남자/말다)} <sup>P1→P2</sup> {원하다} {아니다} 휴지(손내림) (460)

원천 텍스트 :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사람들의 손을 아버지에게 닿게 하고 싶지 않고요. 저희 가족은 절대 부검을 원하지 않습니다.

- 통역사 9 : {나(9형)} {아버지} {죽다} {경찰} {남성}<sup>앞으로 손내림</sup> {지시/남성} {알다/남성} {아버지/남성} {죽다/남성}<sup>좌측 몸쪽</sup> {죽은 상태의 남성}<sup>비우세손만. 우측 앞에서 조동멈춤.</sup> {죽다/원하다} {죽다/아니다} {나(9형)} {가족} {가족/안} {원하다} {아니다} 휴지(손내림) (483)
- 통역사 1 : {나(1지)}<sup>고개들며 좌측 응시.</sup> {무엇} {말하다} {나(9형)}<sup>2번. 정면응시</sup> {딸}<sup>짧게 2번</sup> {나(9형)/딸 수형유지} {아버지/딸 수형유지} {죽다}<sup>좌측. 손 응시.</sup> {죽다/지시} {죽다/누구}<sup>2번. 우'입모양.</sup> {죽다/지시 그(우측 앞쪽)} 휴지 {말기다 양손}<sup>P1→P2 우측</sup> {죽다/수술}<sup>우측.</sup> {분석}<sup>우측</sup> {조사}<sup>우측</sup> {안되다}<sup>우측</sup> {원하다} {아니다(손짓기)}<sup>3번</sup> (426)
- 통역사 12 : {나(9형)} {아버지} {죽이다}<sup>P우측 몸쪽→P2좌측</sup> {남성} {경찰} {지시 그(우측)} 휴지 {미래} {또} {죽다/수술} {분석} {조사} {하다}<sup>2번</sup> {원하다} {아니다(손짓기)} 휴지(손내림) (493)

## 2) 피동법의 실현방법

한국어 문법에서의 피동은 ‘보이다’와 같이 타동사에 ‘-이-’라는 피동접미사를 붙이는 접미사 피동을 통한 실현과 ‘보아지다’나 ‘보여지다’와 같이 용언의 어간이나 단형 피동에 ‘-어지다’가 붙어서 형성된다. 단형 피동에 ‘-어지다’를 접속하는 방법은 피동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쓰인다(정경일 외, 2013). 주제 ‘브렉시트 투표 결과’ 분석 자료에서 ‘보이다’ 동사가 자주 나타난다. ‘보다’의 피동사 ‘보이다’를 실현하는 방법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으며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원천 텍스트가 확보되지 못했다. 또 어휘 ‘당하다’는 피동의 문법적 요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사론 차원의 피동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되다’, ‘받다’ 등과 같이 피동의 의미를 갖는 어휘가 자주 나타난다.

첫째, 피동이 나타나는 한국어의 동사를 수어의 일치동사로 수향과 수동의 움직임에 의해 실현(418, 435)되었는데, 통역사 1과 통역사 3은 수어 {선고}의 수향과 수동이 서로 반대되게 실현하였다. 이는 주체와 목적격을 통역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원천 텍스트의 ‘보다’의 피동 의미가 어떠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수어 {같다}와 같은 어휘(133)로 실현하였으며, 원천 텍스트의 ‘발부되다’를 피동 의미로 해석한 경우 수어 {되다} 또는 {생기다}로 실현(450)하였다. 셋째, 원천 텍스트에 포함된 피동의미를 지닌 어휘가 통역에서 생략된 상태로 실현되었다. 넷째, 예외적인 형태로 새로운 해석으로 실현(488)되었다. 통역사 12(488)의 실현방법은 ‘법원이 부검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닌 ‘경찰이 부검을 신청한 것’으로 원천텍스트의 전이과정에서 등가성을 찾기 힘든 전혀

다른 맥락으로 보여진다.

원천 텍스트에 나타나는 피동형을 수어통역할 때는 공간활용이나 수어의 일치동사의 수동방향에 따라 주격과 목적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통역 실현이 가능하지만, 문장 분석이 쉽지 않은 복잡한 문장일수록 통역사마다 해석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현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본 분석 내용을 피동이 나타나는 원천 텍스트의 보편적인 통역 방법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원천 텍스트 : 고 백남기 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통역사 1 : {죽다/수술} <sup>우측</sup> {분석} <sup>우측</sup> {인정} <sup>느리게</sup> {선고받다} <sup>P2우측→P1</sup> (418)

통역사 3 : {#백남기} {죽다} {몸(9형)} {대로} <sup>2번</sup> {수술} {영장} {선고} <sup>P1→P2</sup> {끝} (435)

원천 텍스트 : 결과는 점심때쯤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역사 4 : {마지막} {내일} {정오} {정도(모로 세운 손 좌우로 흔들)} {알다} {있다} {같다} (133)

원천 텍스트 : 경찰이 2차로 신청했던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이 어젯밤 발부됐습니다.

통역사 6 : {경찰} {#2} <sup>비우세손</sup> {#2/#차} {제안} {제안/원하다} {죽다} {#백} {밭} {사람} {대로} {수술} {조사} {법} {영장} {어제} {어둡다} {허락} {되다} {끝} (450)

원천 텍스트 : 다른 지역에서도 투표소마다 길게 줄을 선 모습이 보이곤 했습니다.

통역사 14 : {(도장)찍다} {하다} {위하여} {줄서다} <sup>좌측. 느리게. 짧은휴지</sup> (250)

원천 텍스트 : 법원이 백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통역사 12 : {경찰} {죽다/수술} {분석} {조사} <sup>2번</sup> {주세요} (488)

#### 4. 부정문의 실현방법

부정문은 단순한 사실을 부정하는 사실 부정(아니다), 주체가 행위하고 싶지 않음을

나타내거나 상대에게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의지 부정(안하다), 상태, 성질, 존재를 부정하거나 경험이 없거나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상태부정(없다, ~적 없다), 동작이나 행위의 완결을 부정하는 완료부정(아직 ~하지 않았다), 주체의 의지에 비해 외부적 요인에 의해 할 수 없거나 어떤 행위를 해도 소용없음을 나타내는 능력부정(못하다, ~할 수 없다), 동작의 금지나 상대의 요구에 대한 거절, 의지가 있으나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어떤 동작을 제어시키는 상황부정(금지, 거절, 불가능, 말다)이 있다(김만영, 2014). 그리고 그 밖에 부정문이 나타나는 것은 모순관계를 나타내는 관계 어휘를 통해서 표현된다.

부정문의 실현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원천 텍스트의 능력부정과 상태부정이 수어 {못하다}를 통해 능력부정으로 실현(569과 46)되었다. 특히 통역사 2(46)의 텍스트는 어떤 대상의 현상을 원래의 상태로 되게 하는 ‘되돌릴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진행되는 투표를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는 능력을 부정하는 형태로 {못하다} 수어를 통해 부정법을 실현한 것이다. ‘못하다’는 것은 어떤 일을 일정한 수준에 미치게 하거나 그 일을 할 능력이 없다는 의미로써 미흡하거나 불가능하거나 능력이 떨어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어 대응 수어 어휘로 표현된다. 둘째, 능력부정이 성질을 부정하거나 동작하지 않음을 의미한 상태부정으로 실현(236)되었는데 이때, 어휘 ‘되돌리다’가 대응 어휘로 쓰여지지 않고 ‘원래 있던 것을 없애고 다른 것으로 채워 넣거나 대신한다’는 의미를 가진 {바꾸다}로 실현하였다. 셋째, 능력부정이 동작의 금지나 거절, 상대방에게 어떤 동작을 제어시키는 상황부정으로도 실현(11)되었는데, 이때 ‘되돌리다’는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뒀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수어 {포기}와 함께 상대방에게 어떤 동작을 제어해서 상황부정을 표현하는 수어 {안 되다}를 통해 부정문을 실현하고 있다. 넷째, 능력부정이 형용사 {어렵다}, {갈등}, 동사 {막다} 등의 어휘로 실현. 즉, 원천 텍스트에 나타난 부정어가 통역에서는 표현되지 않는 실현 방식(191)도 나타났다.

이처럼 능력부정을 표현하는 동일한 원천 텍스트가 통역사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46, 236, 11, 191)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천 텍스트 : ... 네살배기가 나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역사 10 : ... {4살} {사람/지시} {4일} {동안} {쓰러지다} {생각} {불가} (569)

원천 텍스트 : "이번 선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통역사 2 : {오늘} {넣다(투표)} {그대로} {못하다} (46)

통역사 13 : {오늘} {넣다(투표)} 휴지 {바꾸다} {없다} (236)

통역사 1 : {지금} {(도장)찍다} {넣다(투표)}<sup>2번</sup> {포기}<sup>좌측</sup> {안되다} 휴지(손내림)

(11)

통역사 8 : {오늘} {넣다(투표)} {그대로} {어렵다} (191)

부정문 실현의 다섯째 방법은 원천 텍스트의 능력부정이 완결을 부정하는 ‘아직 ~하지 않았다’로 실현(529와 545)하였다. 원천 텍스트에서의 표현양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문장 내의 ‘의미는 의식을 잃은 상태’ 즉 때로는 한자어 ‘의식불명’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텍스트의 부정법 실현방법은 완료 부정으로써 {생각} + {재활} + {아직} 또는 {눈뜨다} + {아직}으로 실현하였다. 이는 의식 상태가 완전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수어적인 표현이다. 이때 원천 텍스트의 의미는 의식을 잃은 상태이며 아직 회복이 진행되는 단계는 아니며, 따라서 의식이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더 지나가야 함을 표현하기 위해 {아직} 부정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원천 텍스트 : ... 4살 아이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역사 4 : ... {생각} {눈감다} {재활} {눈뜨다} <sup>눈뜰</sup> {아직} <sup>3번</sup> <sup>입모양</sup> 아직  
(529)

원천 텍스트 : 최 군은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역사 5 : {최씨} {꼬마} {전남} {대학} {병원} {입원(실려가다)} {응급  
{입원} {생각} {0} {생각} {재활} {아직} (545)

여섯째, 원천 텍스트의 사실부정이 동작의 금지나 거절, 상대방에게 어떤 동작을 제어시키는 상황부정으로 실현(426)되었는데, 통역사 1(426)은 상황부정을 표현하는 수어 {안되다}를 통해 부정문을 실현하고 있으며 덧붙여 상대방에게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의지부정 {원하다} + {안하다}를 추가로 통역하였다. 이는 원천 텍스트에서의 주어 ‘저희 가족’이 통역에서 생략된 것으로 부검을 하는 주체인 경찰에게 ‘부검을 실시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표현한다. 통역사 1은 이미 이전 통역에서부터 경찰을 우측에, 가족을 좌측으로 공간 설정을 해 두었다. 그래서 부검을 표현할 때도 우측에서, {안되다}의 수향 역시 우측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주체가 행위를 하고 싶지 않음을 나타내는 의지부정 {안하다}를 통해 가족들은 그러한 행위를 하고 싶지 않음을 경찰을 향해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통역사가 수어를 통해 직접적으로 ‘저희 가족’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나타내지 않으나 통역을 하는 수화통역사가 주체임을

인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김철관·윤병천, 2011; 이태형, 2001; 최상배, 2010; 최상배, 2011; Cokely, 1986; Napier, 2002)에서 정의한 오류 유형 중 ‘부가’에 해당될 수 있는 통역사 1의 실현(426)이 공간을 활용한 수어의 문법기능을 분명하게 보여줄 뿐 아니라 Livingston, S.외(1994)의 통역전략 중 텍스트의 표면에 나타난 어휘의 단순한 의미를 넘어선 텍스트에 암시된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자 해독하기’에 해당하게 된다.

원천 텍스트 : 저희 가족은 절대 부검을 원하지 않습니다.

통역사 1 : {죽다/수술} 우측 {분석} 우측 {조사} 우측 {안되다} 우측 {원하다} {안하다(손것기)}<sup>3번</sup> (426)

통역사 3 : {또} {우리} {남다} {가족} {수술} {원하다} {아니다} 휴지(손내림) (443)

통역사 1(426)과 달리 통역사 3(443)는 부정문의 실현방법 일곱째, 원천 텍스트의 단순한 사실 부정이 동일한 형식으로 실현(443)한 것이다. 통역사 3(443)의 원천 텍스트는 <주어+목적어+서술어> 구조로 비교적 단순한 전이의 형태인 어휘 대응식 통역으로 실현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원하지 않다’는 사실부정이 동일한 형식인 {원하다} + {아니다}로 실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원천 텍스트에는 부정 표현이 없으나, 부정어휘 {아니다}로 두 가지 상황을 대조시켜서 실현(413)하였다. 통역사 11(413)은 ‘만원과 동결’을 {1만} + {아니다} + {~면} + {그대로}로 표현하면서 수어 {아니다}를 통해 두 가지 상황을 대비시키고 있다. 단 ‘만원과 동결’이 노사가 각각 최초로 제출한 요구안과 이후 수정이 없었다는 표면적 의미에 대해 통역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수정안을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수어 {추진하다(1지로 쪽 이어나가다)}라는 어휘로 함축하여 표현함으로써 ‘만원과 동결’이 계속 이어져 옴을 표현하고 있다. 원천 텍스트에서 표현된 과정이 생략 또는 요약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은 통역전략으로 해석된다.

원천 텍스트 : 노사 양측이 각각 1만원과 동결이라는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수정안을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역사 11 : {오늘} {일} 좌측 {회사} 우측 {오늘} {1만} 비우세손 {아니다} 우세손.짧은음격임 {~면} {그대로} {논의} 3번 휴지 {오늘} {1만} 좌측 {대로} {추진하다(1지로 쪽 이어나가다)}<sup>임</sup> 부폴림 {처음} 비우세손.좌측 (413)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수화통역사가 출발 음성 텍스트의 문법 범주를 어떻게 수어로 실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8개의 방송에서 송출되는 TV뉴스 수어방송통역의 뉴스 문장과 수어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농인의 수어를 대상으로 한국수어의 문법적 특성을 분석·제시한 선행 연구(엄미숙, 1996; 원성옥 외, 2013; 윤병천, 2003; 이정옥, 2012; 이준우·남기현, 2014)에서 나타난 문법 범주 즉 평서형 서술문과 의문문, 시제와 상, 사동법과 피동법, 부정문이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수어통역 과정 중에 서로 다른 언어체계에서 적절한 대응어를 찾고자 하는 수화통역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성언어의 간섭과 단위발화수가 높은 방송통역의 특성 등의 이유로 실현되는 목표 수어통역 텍스트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의향법 중 평서형 서술문의 실현방법에서 앵커의 발화내용이 많아서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시간이 다소 촉박하기 때문에 다음 텍스트와의 통역 간격이 짧아서 종결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한국수어 표현에서 지양하는 한국어의 서술격조사인 ‘이다’, ‘입니다’의 대응수어 {이다}, {입니다}의 실현, 그리고 출발 음성언어의 종결형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말하다}, {말하다+끝}이 문장의 종결을 위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통역 말미에 사용된 수어 {말하다}는 간접인용형으로서, 통역사는 발화자인 기자의 입장에서 통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역사가 제3자에게 전달하는 관점이 될 때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말하다} + {끝}은 서술어 뒤에 과거시제 또는 완료를 의미하는 {끝}을 표현함으로써 기자의 말 또는 한 문장의 종료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시간 부사 어휘와 서술어의 시제 불일치 현상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이 같은 어휘 종결은 통역현장에서 많은 통역사들이 범하고 있는 습관이며 오류에 해당한다. 이것은 청인이 연설이나 강의를 할 때 ‘음~’, ‘어~’, ‘그~’ 등 시간을 벌기 위해 사용되는 필러(filler)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필러가 본 연구에서는 문장을 시작할 때 ‘이번’을 의미하는 수어 {오늘}의 반복적인 사용, 어떤 것이 첨가되는 필러는 아니지만 비수지번호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일관되게 통역하는 현상, 음성언어의 간섭을 제어하기 위해 종종 사용되는 입의 움직임 등 다양한 습관이 발견된다. 따라서 화자의 발화 속도가 느려지거나 통역이 발화자보다 빨리 끝이 났을 때, 혹은 통역사가 화자의 발화내용을 놓치거나 잘못 들었을 때 이러한 필러를 사용하기 보다는 일정한 몸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통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통역 과정에서 통역사는 필러의 사용이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 수어통역과정에서는 이러한 불필요한 동작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내용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의문사 또는 {묻다}와 의문의 비수지신호로 실현되는 의문문의 실현방법에서 판정 의문문이 평서형으로 종결되거나 구체적인 상황을 질의하는 Wh-의문문의 형태로 실현되고 있으며, 평서형 서술문이 분열되면서 의문 부사가 사용되어 화제화되는 특징이 나타난다. 분석 자료가 많지 않아서 특징지을 수 없지만 간접 인용문에서 나타나는 판정 의문문은 수어통역에서 그 형태가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뉴스 문장은 사실적인 정보의 전달이나 설득을 위한 설명식 전달로써 대부분 평서형 서술문으로 나타나며 앵커와 리포터가 질의응답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만 의문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난 의문문의 실현방법을 수어통역 현상으로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문문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원천 자료를 수집하여 의문문의 실현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시제와 상의 실현방법에서 대부분의 수화통역사는 시제 부사의 사용과 함께 명사형 또는 동사의 기본형으로 종결하면서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그런데 종종 미래시간 부사가 사용된 미래시제 문장의 서술어가 완료형을 의미하지 않는 ‘-ㅂ니다’ 종결임에도 수어 {끝}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시제 불일치 현상이 실현되고 있다. 상의 실현에서는 완료형일 때 수어 {끝}을, 진행상일 때는 수어 {~중}을 선택하여 실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소수의 수화통역사에 의해 수동의 느린 움직임, 볼 부풀림, 수어의 반복 조동, 입술을 다물었다가 파열음을 내듯이 입술을 벌리는 ‘파’ 입모양 등 비수지신호를 통해 상을 실현하고 있었다. 후자의 비수지신호를 통한 상의 실현방법은 수어의 문법적인 특성을 잘 표현한 것으로 시각적인 정보를 선호하는 농인에게 어휘 대응식의 표현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표현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수화통역사나 농학교 교사(비마이너, 2012. 4.19일자)에게 요구하는 의미의 정확한 전달 및 한국수어(KSL: Koean Sign Language)로의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즉, 어휘 대응으로서의 {~중} 표현이 KSL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수어이기도 하지만 통역현장에서는 음성언어의 간접으로 한국어 대응식(장진석, 2006) 표현에 익숙한 수화통역사가 어휘를 선형적으로 배열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손으로 표현되는 수어 대신 비수지신호로 나타나는 문법적인 요소의 실현이 미흡함을 보여준다. 이는 시각 정보에 강점이 있는 농인에게 분명한 의미로 전달되고자 할 때 비수지신호의 문법적 표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상을 실현하고자 할 때 수어 어휘로써 표현하는 것과 수동의 속도, 볼 부풀림 등 비수지신호로 표현되는 것의 시간 차 확인을 통한 통역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농인의 수어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연구와 그를 바탕으로 한 수화통역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양성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넷째, 사동법과 피동법의 실현방법은 일반적으로 일치동사의 활용 또는 수어 표현의 공간 특성을 이용한 주동문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엄미숙(1996)의 ‘사동법’ 실현 특성은 {명령하다}나 {시키다}와 같은 직접 사동의 어휘를 실현하는 방법과 {시키다}를

생략한 서술어가 수향에 의해 전달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통역현장에서 전달해야 하는 출발 음성 텍스트는 복합문의 형태로 그 구조가 복잡하여 사동문과 피동문을 짧은 시간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통역사의 국어이해를 위한 언어훈련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에 본 분석대상 텍스트에서의 실현방법은 다수의 통역사에 의해 일치동사를 통해 주격과 목적격을 분명하게 나타내거나 서술어+{되다}나 {만들다} 또는 {생기다} 등으로 통역사가 해석한 의미의 어휘의 조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부 통역사는 적합한 대응 일치동사가 없을 때 일반동사 어휘를 선택하여 표현하되 수어 문법을 고려한 공간 활용과 지시를 통해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형태로 실현한다. 따라서 문장 분석이 쉽지 않을수록 통역사마다 해석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현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이 원천 텍스트와 상당히 다른 방식, 다른 의미로 표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처럼 통역사의 직관에 기초한 통역과 몇몇 자료에 의한 내관적 분석 방법(Sylviane Granger 외, 2003)은 오류를 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두드러진 차이점을 지나치게 일반화하게 됨으로써 그 의미가 축소 또는 확장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통역의 등가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하게 드러나는 사동과 피동을 어떻게 통역할 것인가에 대한 통역 전략을 구축하기 위하여 방대한 양의 통역물을 참고한 실증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섯째, 부정문의 실현방법은 출발 음성 텍스트의 부정형이 부정을 나타내는 수어 어휘로 실현되거나, 부정어 표현 대신 ‘되돌릴 수 없다’가 {그대로}+{어렵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제안}+{막다}과 같이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형용사로 실현한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출발 음성 텍스트는 부정 표현이 없는 평서형 서술문인데 도착 수어통역 텍스트에는 부정어휘 {아니다}가 실현되기도 한다. 이는 Livinston, S. 외 (1994)의 통역 전략의 일환으로 텍스트가 진술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을 기술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출발 텍스트를 분열시켜 두 개의 문장을 부정어로 서로 대조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법은 통역현장에서 문장을 해석하는 수화통역사 몹이므로 수화통역사가 이러한 통역 전략을 습득하고 실전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 과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 및 연구결과를 통해 다양한 시사점이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뉴스 문장을 문법 범주에 한정하여 분석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문법단위인 단어 또는 어절만으로 하나의 완전한 사고 체계가 전달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고 기능하는지를 분석하여 통역사와 통역서비스를 받는 농인 모두가 만족할 만한 통역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자어 문화권이기 때문에 언론 기사에 한자가 많이 사용되며 특히 법과 제도에 관한 기사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한자어 사용이 빈번하다. 수화통역사가 현장에서 이런 문장을 맞닥뜨렸을 때 적절한 대응 어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 중에서도 어떤 일이 대처할 계획이나 수단을 준비한다는 의미를

갖는 ‘대객마련’을 실현하기 위하여 평서형 서술문의 문장에서 {미래} + {무엇} 과 같은 Wh-의문사로 실현되는 표현 양상이 갖는 의미와, 이러한 문맥에서 즉시에 대응할 수 있는 통역전략 그리고 실제 농사회에서 이러한 어휘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다양하게 시도되어야 하겠다.

## 참고문헌

- 강창욱 (2000). 문법수화가 언어인가? 에 대한 토론, 『수화언어의 미래를 생각하는 세미나』. 한국수화학회 학술발표자료. 27-30.
- 김만영 (2014). 한국수화와 한국어, 『2014 과천시 전문 수화통역사 양성교육』. 과천시수화통역센터 미간행물. 12-18.
- 김철관, 윤병천 (2011). **수화통역학개론**. 경기도: 양서원.
- 김태욱 (2007). 한국 TV 수화통역방송에 대한 농인의 인지도 조사연구.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은주 (2013a). 한국어-한국수화 동시통역 사례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나사렛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민은주 (2013b). 한국어-한국수화 동시통역의 시간적 양상 분석 : 타임랙 현상을 중심으로. **특수아동교육연구**, 15(4), 427-444.
- 문성철, 송종길 (2012). 자막.수화방송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연구**, 77, 134-161
- 백중환 (2011).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자료집. 서울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방송통신위원회 (2009). 장애인 방송제작물 제작 편성 확대를 위한 정책 연구-융합방송 미디어로의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
- 방송통신위원회 (2011). 시청각 장애인 시청지원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 방송통신위원회 (2012). 지상파TV 방송시간 자율적 운용 허용. 2012년 9월 7일자 보도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4). 해외 선진국과 국내의 장애인방송 운영제도 비교 연구.
- 송종길 (2009).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방송연구**, 57, 147-178.
- 신상현 (1993). **방송 문장론**. 서울: 전예원.
- 안은선 (2002).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엄미숙 (1996). 한국수화의 통사론적 특징 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성욱, 강운주 (2002). **수화교육개론**. 서울: 농아사회정보원.
- 원성욱, 허일, 김만영, 김유미, 남기현, 배재만, 변강석 (2013). **Sign: 수화통역의 기초**. 서울: 교우사.
- 윤병천 (2003). 한국수화의 비수지신호에 대한 언어학적 특성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올하 (2008). 한국수화언어의 동시적 결합구조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희 (2011). 한국수어의 동시적 결합구조에 대한 통사론적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준우 (2009). **수화통역 입문**. 서울: 인간과복지.
- 이준우, 남기현 (2014). **한국수어학개론**. 서울: 나남.
- 이태형 (2001). 영한 동시통역의 생략 오류 연구. **번역학연구**, 2(1), 7-27.
- 이태형 (2005). 통역사의 정보처리 전략과 동시통역의 정확도.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7(2): 139-155.
- 이정옥 (2012). 한국수어의 복합문 실현 특성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진석 (2006). 한국수화의 언어적 특성에 따른 국어 대응식 수화의 문제점 분석. **특수교육 저널:이론과 실천**, 7(2), 107-125.
- 정경일 외 (2013). **한국어의 탐구와 이해**.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 정용찬, 김윤화, 박선영 (2016). 2016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경기도: 방송통신위원회.
- 최상배 (2010). 장애학생지원센터 수화통역사의 수화언어 동시통역 과정 분석-H대학 장애 학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특수아동교육연구**, 12(1), 23-45.
- 최상배 (2011). TV 수화언어 방송통역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3(3), 77-99.
- Cokely, D. (1986). The Effects of Lag Time on Interpreter errors, *Sign Language Studies*, 53, 341-76.
- Seleskovitch, D. (1994). **국제회의통역에의 초대**(정호정). 서울: 한국문화사. (2004)
- Stolze, L. adegundis. (2001). **번역이론 입문:번역학 꿰뚫기**(임우영 외). 서울: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11)
- Leigh, Iren W., Jean F. Andrews. & Raychelle L. Harris. (2017). *Deaf culture : exploring deaf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PLURAL PUBLISHING.
- Livinston, S., Singer, B., & Abrahamson, T. (1994). Effectiveness Compared: ASL Interpretation vs. Transliteration, *Sign Language Studies*, 82, 1-54.
- Napier, J. (2002). University interpreting: Linguistic issues for consideration.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7(4), 281-301.
- Napier, J. (2004). Interpreting omissions: A new perspective, *Interpreting* 6(2), 171-142.
- Sharon Neumann Solow. (1981). **수화통역기본참고서**(강주혜). 서울: 한국농아인협회. (1998)
- Stewart, D. A., Schein, J. D. & Cartwright, B. E. (1998), *Sign Language Interpreting: Exploring Its Art and Science*.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A Viacom Company.
- Sylviane Granger, Jacques Lerot & Stephanie Petch-Tyson. (2003). **대조 언어학과 번역학이 코퍼스기반 방법론 연구**(박기성). 서울: 동인. (2009)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http://gsti.ewha.ac.kr/>
- 한국수어사전 [sldict.korean.go.kr](http://sldict.korean.go.kr)
- 비마이너 (2012. 4. 19일자) “농학교 교사 수화통역자격을 의무화하라!”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3452>

The Analysis of Performance Methods of Categories  
of TV News Sentences in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Broadcasting

**Song, Mi-Yeon**

Kangnam University

**Kang, Chang-Wook**

Kangnam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grammatical categories how TV news translated into Korean Sign Language. In order to do this, we first select the news with the same subject among the news sent from each broadcasting company.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are the articles transcribed directly by the researcher while listening anchor's speaking in the TV news, and KSL transcript written directly by the researcher while looking KSL interpreter's interpretation demonstrated by ELAN 4.9.4 program. Especially, KSL transcript was reviewed from two Deaf persons and two sign language interpreters.

The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 transcripts of broadcasts and how they are realized by Korean sign language with the grammar categorization is such as a declarative sentence, the question sentence, the tense, the aspect, the causation and passivity, the negative sentence.

Through this analysis process, the substitution interpretation type which realizes the corresponding language of the source text in a linear arrangement according to the spoken language is frequent in the KSL broadcasting interpretation field. The linear arrangement of vocabulary means that the grammatical category and sentence structure of KSL capitalizing simultaneity, localization in space, and indexing are not fully realiz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studies that collect various interpretation cases in the future.

**Key Words**

: Language Interpretation, TV News, Interpretation Broadcasting,  
Grammatical Categories,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논문 접수: 2017. 09. 13 심사 시작: 2017. 09. 13 게재 확정: 2017. 10. 10